

러스트벨트 우편 투표 결과에 최종 승자 가려진다

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 등

트럼프, 경합주 대부분 우세

바이든, 애리조나 승리 역전 기대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격전지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핵심 경합주(州)의 개표가 늦어지면서 승자 확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들 경합주의 개표가 끝나야 최종 승자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신경전도 극도로 치닫고 있다.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3시 기준으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6대 경합주 중 현재까지 2016년과 결과가 바뀐 곳은 애리조나 한 곳뿐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를 포함한 선벨트(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와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에서 이기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 6대 경합주 수성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에서 51.2%의 득표율로 바이든(47.8%) 후보를 제쳤다. 반면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를 내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95%의 개표율을 보인 가운데 트럼프가 50.1%로 48.7%를 얻은 바이든을 1.4%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기울었지만, 격차를 감안해 미 언론은 아직 승패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한 펜실베이니아는 74%의 개표율 속에 55.7%를 얻은 트럼프가 바이든(43.0%)을 크게 앞섰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과 우편투표 등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개표가 남아 있다.

CNN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선거일인 화요일까지 수십만 장의 조기투표 용지를 처리할 수 없었다"면서 "필라델피아에서는 이날 늦게까지 도착한 우편투표 35만 건 중 약 7만5천 건만이 개표됐다"

고 보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도 70~80%대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인단 16명의 미시간에서는 69%의 개표율 속에 트럼프(53.1%)가 바이든(45.2%)을 7.9%포인트 앞섰다. 개표율 81%인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51.1%)와 바이든(47.1%)의 격차가 4.0%포인트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펼치며 신(新)격전지로 떠오른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아이오와에서도 90%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가 압도했다. 텍사스에서는 70%대 초반 개표까지는 둘이 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치고나간 트럼프 대통령이 7%포인트 승리했다. 오하이오, 아이오와에서도 트럼프가 8.1%포인트, 7.2%포인트 앞섰다. 조지아에서는 91%의 개표율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2.5%포인트 앞서고 있다.

결과 개표해야 할 우편투표가 많은 러스트벨트의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득표에서는 바이든이 6573만여표(49.8%)를 얻어 트럼프의 6412만여표(48.6%)를 앞섰고 있다.

WP 기준으로 두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바이든 220명, 트럼프 213명이다. 중간 집계이지만 트럼프가 뒤지는 것은, 그가 앞서고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합주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트럼프가 유리하지만, 바이든이 러스트벨트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6대 경합주를 제외한 2016년 대선 결과가 유지될 경우 바이든은 애리조나를 포함해 24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승리 매직넘버 270명을 위해서는 27명의 선거인단이 더 필요하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뒤집을 경우엔 269명으로 돌음이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바이든 후보는 러스트벨트 개표가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한 뒤 법적 대응을 거론해 개표와 관련한 양 측간 정치적·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투표가 마감된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개표 상황에 '축각'...북핵·방위비 등 정책 대응방향 점검

외교·통일·국방부, 판세 분석 집중

정부는 3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쉽게 승자를 점칠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자 개표 상황에 축각을 곤두세우며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4일 이른 아침부터 미 대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승리할지 판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종권 1차관을 팀장으로 한 미국 대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주요 경합 주의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워싱턴D.C.의 주미 대사관에서도 수시로 대선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북미국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 관련 부서의 일부 인원은 밤새 개표 상황을 쟁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핵문제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 현안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압승하리라는 일각의 예측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지에서 앞서나가면서 최종 승자 확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승부가 곧바로 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현재로서는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대선 직후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다.

국방부 역시 접전 양상을 보이는 미 대선 개표 상황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여러 국방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군 당국은 주요 이슈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은 북미협상의 장기 교착 국면에서 북

한이 미 대선 직후 도발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미국 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통일부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는 '통일정책실'과 북한 동향과 주변 정세를 분석하는 '정세분석국'이 주축이 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북미·남북관계가 미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답보상태였던 만큼, 대선이 끝나면 서 남북관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부로서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하게 전진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새로운 정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주목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플로리다·텍사스 라틴계 유권자층서 강세

美 주요 방송사 출구조사...바이든, 非 백인층 우위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혼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지지를 4년 전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에디스리처치의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

다주와 텍사스주 같은 경합주 라틴계 유권자층에서 놀라운 강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선에서 CNN, ABC, CBS, NBC 등 미 주요 방송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론조사업체 에디스리처치를 통해 출구조사를 진행했다. 플로리다주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

든 후보는 라틴계 유권자층을 양분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라틴계 10명 중 4명의 표를 얻은 바 있다. 선거인단 29명이 걸려있는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백인을 제외한 유권자 10명 중 3명의 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4년 전에는 백인이 아닌 유권자 10명 중 2명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로이터통신은 출구조사와 같이 바이든 후보가 비(非)백인층에서 우위를 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보다 비백인 유권자들의 표를 더 얻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 우편투표 지역별 인정 기한
선거당일 소인만 적혀있으면 투표일 이후에 도착해도 인정하는 23곳

3 11월 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일	4 텍사스	6 펜실베이니아 캔자스 켄터키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9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10 네바다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12 노스캐롤라이나	13 오하이오 워싱턴DC 메릴랜드 일래스카	17 일리노이 유타	20 캘리포니아	23 워싱턴

미인정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간,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버몬트, 위스콘신, 와이오밍

자료/뉴욕타임스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2021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미취(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공과대학 4호관 202호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 일시	2020. 12. 3.(목) 10: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0. 12. 23.(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 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20. 10. 30.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750,000,000 원 중 397,500,000원을 감소하여 금 352,5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 중 5,300원을 주주에게 환급하여 1주의 금액을 4,700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각 주주는 같은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5일
한송개발 주식회사
전남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581, 202호 대표이사 장재욱

분실공고

- 분양계약서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 화지구 지원시설용지 9011-1, 2 에이 스피드트 고덕 지식산업센터 404호
- 계약자 : 양규주
-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 2020년 11월 5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11월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7일 전북 대등산·돛대봉 단풍산행, 봉선동 롯데마트 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 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8일(일)
▲광주자연보호전담사회 11월8일(일) 작은가야산(경남 합천),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호전담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1월22일(일)
▲광주자연보호전담사회 11월22일(일) 연석산~운장산(전북 완주),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호전담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